

법인법 갈등, 조계종·선학원 소송 '비화'

법등 스님, 25일 기자회견... "정상화위해 소송 제기"

조계종이 (재)선학원 이사회가 변경한 법인 정관을 원상복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선학원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관 변경이 이뤄진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 법등 스님은 8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중지종풍 봉대 등 정관 변경
- 효력 무효화 위한 소송 진행
- "협상 가능하다면 대화할 것"
- 선학원 "적법한 절차로 변경"
- "예상한 수순", 기존 원칙 고수
- "소송으로 삼보장재 낭비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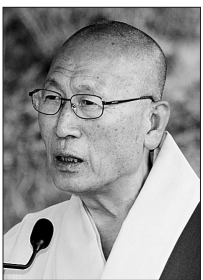
조계종이 추진하는 소송은 지난 2013년 4월 11일 선학원 이사회가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 '선학원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것을 삭제한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등 스님은 "정관에서 삭제된 조항으로 선학원의 정체성이 불투명해졌다"면서 "이로 인해 타종단 스님이나 재가자까지 선학원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는 선학원 설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선학원 측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선학원의 설립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다. 소송보다 협상과 대화가 우위에 있다. 지금이라도 선학원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공고문을 통해 7월 31일자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권리 제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종단과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협조·동의를 한 선학원 본원의 창건주와 본원장,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조계종의 법적 대응과 제재 조치에 대해 선학원은 '예상한 수순'이라 별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의 '정관 변경 효력 정지' 소송에 대한 대응은 공식적인 소장(訴狀)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선학원 이사 한복 스님은 "법인의 정관 변경은 고유 권한으로서 관할 관청의 보고가 이뤄지는 등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종단에서 이를 놓고 시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단의 정상화추진위원회 출범할 때도 법적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다. 종단이 제기한 소송은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면서 "법안 내용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복 스님은 종헌 9조 3항 및 법인관리법 폐지 등의 기존 입장이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선학원의 공식 입장을 수 차례에 밝힌대로 변함없다"면서 "소송을 하면서 삼보장재를 낭비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종단 화합위해 징계자 사면 필요"

원로의장 밀운 스님, 24일 총무원 간담회서 강조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사진)이 종단 화합을 위해 '정치적 징계자'의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운 스님은 8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총무원 간담회에서 사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중앙총회의장 성문 스님, 중앙총무기관 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밀운 스님은 현재까지 종단 차원의 사면은 없었고 화합을 위해서라도 사면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운 스님은 "현재까지 종단에서 정치적 징계자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면서 "현행 종헌 중법 틀 안에서는 사면을 논의하



기가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종헌 128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헌 중법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종단의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사면'을 주제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밀운 스님은 그간 종단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스님들의 사면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8월 3일 대중공사 추진위원회 스님들과의 만남에서도 밀운 스님은 "우리는 자비문중이니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과거에 억울한 분들을 구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그간 분란 참회... 수행정신 회복하겠다"

해인총림 해인사, 27일 참회 법회 개최

"총림 대중은 뼈를 깎는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진정한 총림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참회의 참(懺)은 지나간 허물에 대한 반성이요, 회(悔)는 미래를 향한 다짐입니다. 오늘은 참회의 자리인 동시에 내일을 위한 발원의 자리, 원용살림과 육화정신으로 승가 공동체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항적)는 8월 2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해인총림 수행정신 회복을 위한 참회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참회법회는 신임 주지 항적 스님이 임명되기까지 겪은 내홍을 정리하고 참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회에는 방장 원각 스님, 주지 항적 스님, 유나 관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원철 스님, 선원장 효담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림 대중은 방장 원각 스님을 참회주로 모시고 원용 화합, 수행정진, 중생구제에 대한 원력을 새롭게 다짐 하고 해인 총림의 본래 모습을 회복 할 것을 다짐했다. 참회법회는 주지 항적 스님의 참회문 낭독과 방장 원각 스님의 유시 및 유나 관도 스님의 결의문 순으로 진행됐다. 방장 원각 스님은 유시를 통해 "방장 추

대 과정과 신임 주지 추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얽히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져 해인 총림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실추됐다"면서 "오늘 총림의 대중 스님들이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또 앞으로 잘 살고자 다짐하는 참회 법회를 병행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방장·주지 선출 내홍 반성
- 총림 구성원 간 화합 결의
- 방장 스님도 참회에 동참해
- 총림 대중들 200여 명 참석

이어 "산승도 이 참회 법회의 참회주인 동시에 대중과 함께 불조에 참회하고자 한다"면서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과 같이 이번 일을 전회위부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해 총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항적 스님은 제불보살과 역대조사 및 사부대중께 올리는 참회문을 낭독하며 그간의 허물에 대해 참회하고 총림 발전을



해인총림 해인사는 8월 2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해인총림 수행정신 회복을 위한 참회법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방장 원각 스님이 유시를 내리는 모습.

다짐했다. 항적 스님은 참회문을 통해 "선현들의 은혜를 망각한 자급의 후학들은 풀과 나무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총림을 파행과 갈등의 장(場)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반성하며 "바뀌가 깨어진 수레로는 절대 먼 길을 갈 수 없다. 이제 멈춘 수레를 고쳐 다시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용살림과 육화정신으로 승가 공동체의 본래 모습을 회복 할 것이며 총림 정신의 구현주체자로서 주어진 모든 역할에 성심껏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나 관도 스님은 결의문을 통해 총림의

수행 가풍과 명예를 지키는 일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전했다. 관도 스님은 "해인 총림은 성철·고암·해암·법전·원각 대선사로 그 법통이 이어져왔으며 방장 벽산 원각 대선사는 총림의 최고 어른이시며 총림 대중은 그 존엄과 법에 의지 할 것"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해인총림 대중은 △불교적 가치와 윤장정신, 선종의 수행가치를 내면화하고 체화(體化) 하는 삶을 살며 △총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과 행동 엄금 △총림의 본래 기능인 수행과 교육, 포교에 매진 △대중청구 실천에 적극 임할 것을 다짐했다.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사부대중 공동체, '신뢰 회복' 급선무

조계종, 26일 6차 대중공사서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안 논의

- 사찰운영위 강화 등 제도 개선
- 승가 공동체 자정 회복도 필요
- 토론서 출 · 재가자 입장차 확인



조계종은 8월 26일 공주 태화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사부대중 공동체, 어떻게 이를 것인가'를 주제로 제6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현대적 사부대중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출가자와 재가자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6일 공주 태화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사부대중 공동체, 어떻게 이를 것인가'를 주제로 제6차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두, 분묘 토론들을 거쳐 사부대중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출·재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신뢰 회복 방안으로 사찰운영위원회 강화 등 제도 개선과 의식 교육 등

을 제시했으며,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많은 전문 인력을 사찰 운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교구총회나 사찰운영위원회에 제도적으로 재가자의 참여를 보장해 재가자들이 사찰 운영에 주체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것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포교나 사회복지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6차 대중공사 모듬 토론에서는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에서 재가자 역할을 놓고 출가와 재가의 입장이 확연히 확인됐다. 중앙총회의원 만당 스님은 "현재 신도들을 보면 사찰에는 별 도움을 주지 않고 귀족적 생활을 한다"면서 "스님은 스님답게 재가는 재가답게 정말 열심히 산다면 불교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재가불자와 스님들은 스승과 제자 관계다. 재가자에게 중요

한 역할은 승가 수행을 잘 보필하는 것"이라면서 "재가불자들의 역할은 매우 미흡하다. 당장 천주교 평신도들과 비교가 된다. 재가불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가불자들은 구성원 간의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유지원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는 6모듬 분묘 토의에서 "공동체가 깨지는 중요한 요인은 내부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라면서 "재가와 승가의 갈등은 이해한다. 그렇다면 승가 내부는 신뢰는 공고한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승가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가자들은 '승가 내부의 자정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승가의 신뢰 회복이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승가와 재가 모두 서로의 잘잘못만 이야기 한다. 이는 상호 신뢰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대학생 불자는 불교가 대학생 불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 스님과 선배들이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7차 100인 대중공사는 오는 9월 23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수행풍토 진작과 승가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주=신성민 기자

성명서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에서는 지난 7월 10일 교구총회를 열고, 종단사태에 의견을 달리고 있는 본 교구 소속 도산 총무원장과 수열 호법원장을 초청하여 종단분열의 사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화해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에 제주교구 종도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 1 종단의 현실을 직시한대 종단의 분열과 법통의 단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무조건 분란이전으로 돌아가 서로 화해하여 불조 앞에 죄인이 되지 않게 하자.
- 2 종단의 법률, 제도, 관행은 부처님 법에 맞게 진단하고 개선하여야 마땅할 것이며, 세 과시와 행동력으로 대세를 결정해 가려는 풍토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 3 원수거나 친하거나 모두 성불하지는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마음과 화합정신으로 상호 인정하고 상호 용서하여 종단의 미래를 밝게 하자.

불기 2559년 8월 25일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총무원장 탄해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종도일동 합장